

● '88년을 보내며

축산물 수입개방을 돌아본다



정성준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무이사)

낙농육우산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발전적인 성과 보다는 못다한 커다란 과제들만 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농업 전반이 그러하듯이 축산업 특히 낙농육우산업의 기반은 아직 외부진입에 대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영세하고 부업 규모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외개방과 관련하여 너무도 큰 시련을 치른 해가 아니었나 싶다.

지난날의 정치권력과 유착된 부분별한 쇠고기 및 생축수입으로 그 엄청난 소값 파동을 겪은 후 아직 치유의 단계에서 또 다시 쇠고기

수입이 보도되자 연초부터 양축가의 거센 반발은 전국을 메아리치게 되었다. 더우기 작년 말 쇠고기 수입재개 보도후 정부의 수입개방 논리는 농민을 자극시키기에 알맞았다. 공산품 수출로 인한 대미 무역흑자로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와, 국내의 수용적인 의견은 올림픽을 앞두고 고급육을 수입충당해야만 올림픽을 원만히 치룰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었다. 말하자면 낙농육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미국의 압력을 무마시키는 방향으로 수입을 허용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에 양축가의 분노는 정부의 선행 대책없는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게 되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절규에 찬 함성으로 이어졌다. 1월 8일의 정부청사 앞 전국 낙농육우인 수입반대 결의대회는 아마 정부수립 후 최초의 대규모 농민대회이자 농민의 화난 모습을 행동으로 표시한 사진이었다. 이후 전국적인 갖가지 수입반대 시위는 끊이지 않았고, 국회의사당 앞 시위가 전국 규모로 4차례나 열리는 등 농민의 집단 행동이 도시로 진출하는 서글픈 현실이 연속되었다. 그동안 정부를 신뢰하여 소키워 잘살아 보자는 소박한 꿈이 무너지고 빗더미에 올라 앉은 농민의 울분은 전국을 함성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농촌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 부업으로 소를 길러 그나마 도움받을까 하는 기대감이 결국은 빛에 쫓들리는 상황으로 발전된 농가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불안한 추세에 맞춰 신 사육농가수는 급격히 줄어 들었다. 지난해 연말과 금년초 400kg 기준 한우 산지 거래가 격은 1백 1만원대에서 머물러 있어 언제 가격이 호전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에서 또다시 쇠고기 수입개방이 거론되자 양축가들의 사육 의욕은 극도로 저하되어 시장방매 현상이 늘어났다. 특히 1~4두 규모의 농가가 93%를 점하는 가운데서 송아지 값 하락에 따른 번식의욕 저하는 상대적으로 비육에 치중하는 관행으로 지우치게 되었고, 따라서 암송아지를 아예 비육소로 전환하는 경향이였다. 우선 밀소 가격이 싸므로 단기비육을 시켜 시장출하함으로써 자본회전이 빠른 비육에 치중하자 암소의 도축이 늘게 되었고 번식은 크게 줄어 들었다. 소값은 바닥에서 맴돌아 농가의 사육 의욕이 가셔진 상황에서 암소 도축증가와 암송아지 비육 관행은 결국 번식기반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게 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외국 쇠고기 수입명분을 안겨다 줄 만큼 번식기반은 무너지고 말았다.

그토록 불가능으로만 여겨졌던 우리나라의 쇠고기 자급자족 기반을 농민의 큰 희생을 치른 댓가로 이룩하였었지만 결국 또다시 공급기반 부족의 상태로 전환되고 말았다. 과일 생산에서 오는 소값 폭락으로 암소 도축 등 집중적인 사육두수 감축 정책이 주효하게 되었고, 소값이 다소 상승하게 되자 이제는 공급기반 상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태에 직면함으로써 소값 문제만이 아닌 낙농육우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

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 소값은 연 4년째 계속된 하락세에 계속 머물다가 연초부터 미세한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1월에 400kg 한우 숫소가 1백 1만원에서 맴돌았고, 숫송아지는 50만원대에 있었다. 현재(11월)는 1백 60만원대에 있고 숫송아지는 80만원대에서 상승추세에 있어 다소 소값에 대한 우려하는 바가 없지 않다. 급격한 소값 상승은 후에 소값 파동의 기미마저 없지 않고 쇠고기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의 소리를 등에 얹고 쇠고기 수입명분을 안겨다 줄 가능성 때문에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예상 도축두수에 비해 암소 도축에 따른 송아지 생산 예정두수가 훨씬 못미친다는 예상이 다소 장기간 소값의 강보합세 유지 가능성을 보이는 반면, 그만큼 수입 주장 또한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진다면 법제화된 선행 대책이 없는 한 커다란 우려가 아닐 수 없다.

낙농은 올들어 우유 소비가 촉진되어 분유 재고가 감소되는 등 다소 활기를 띠었으나, 3년 이상 동결되어 있는 원유가격과 유제품 수입개방 보도 등의 영향으로 농가수의 감소와 낙농가의 의욕이 상실되는 등 어려운 한 해였다. 생산 기반이 취약한 낙농업의 경우 국내의 안정기반 조성시까지 유제품 수입개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저지되어야만 국내의 생산활동이 영위될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내 낙농육우산업의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리가 유난히도 컸던 한 해를 보내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터전이 이룩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